

한중일 공동선언문에 'CVID' 담을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정상회의 앞두고 3국간 이견

일본, 납치문제 포함 주장

한·중, 강경 일변도에 비판적

오는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3국간 이견이 부각되고 있다. 한중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내용을 포함할지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아시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CVID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 교도통신은 5일 각각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대변인 명의 메시지를 통해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는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본과 의견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대신 정상회의에서 남북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할 계

확이다. 중국도 역시 압력 유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아시히신문은 중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틀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일본이 압력만 호소한다면 (관련 내용을) 논의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중국 외교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선언문에 남기려 하고 있다. 납치를 핵·미사일 문제와 묶어 포괄적인 해결을 지향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넣으려는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나쁜 해의 정부 인사들에게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납치문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북한과의 대화는

전되지 않아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 역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공유하지만 이 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본과 느끼는 온도차가 크다.

중일 간 인식차는 지난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전화통화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전화 통화에서 두 정상에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가자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시 주석이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하는 한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간신 양국충

양국충(楊國忠, ?~756)은 당 현종때 재상으로 양귀비의 친척오빠다. 인사전횡과 부정부패로 안록산의 난이 발생하는데 일조했다. 현종을 수행해 사천으로 피난 중 마외역에서 살해되었다.

본명은 소로 양귀비의 먼 사촌오빠다. 측천위제 말년 총애를 받은 장역지, 장충종이 그의 모친의 형제라는 일설이 있다. 젊은 시절 학문을 멀리하고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냈다. 하고 술과 도박으로 왕따가 되자 분발해 사천지방 신도현의 현위가 되었다. 임기를 마치고 귀향해 양귀비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결국 둘째 언니 귀국부인과 깊은 관계가 되었다. 총애하던 무혜비가 죽자 현종은 고려사의 천거로 양귀비를 후궁으로 맞이했다. 그녀가

752년 병사의 이임보를 문명했다. 이 임보는 “나는 죽을 것이고 공은 반드시 재상이 될 것이니, 이후의 일로 공에게 누를 끼치지오.”라며 집안의 장래를 부러웠다. 그러나 사후 관직은 삭탈되고 시신은 부관침시 되었으며 가족들은 귀양 보내졌다. 양국충의 재상 시대가 열렸다. 그는 사람됨이 억지 말을 하며 가볍게 행동하고 위엄과 위기가 없었다. 공경 이하를 턱으로 지시하고 기세를 부려 떨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시어사부터 재상까지 무려 40개의 직위를 관장하였다.

평로, 하동, 범양절도사를 겸한 안록산이 최대 정적이었다. 3개의 절도사를 겸해 당 군사력의 3분의 1을 장악하게 되었다. 안록산은 교활한 이임보를 크게 두려워해 충성심을 보였지만 양국충은 하찮게 여겼다. 이로 인

양귀비의 사촌...반란 때 도피 중 피살

현종의 후궁이 되자 많은 관리들이 그에게 접근했다. 향리의 부호 선우충통과 막역한 김남철도 장구경경은 그를 막료로 기용했다. 양씨 집안의 도움으로 금요병조참군의 벼슬을 얻어 정계 진출에 성공했다.

그는 일찍부터 이재(理財)에 뛰어났다. 특히 복잡한 각종 회계 숫자를 다루는데 탁월했다. 도박을 잘해 간혹 현종의 오락상대가 되었지만 결정적 실책을 연게 된 배경은 뛰어난 재무능력이었다. 재정을 총괄하는 왕홍의 참모가 되었다. 황제는 그를 뛰어난 재무관료라는 뜻의 호탁지랑(好度之郎)으로 부르며 신임했다. 그에게 국충이라는 이름도 하사했다. “정부 창고의 충실함이 고금에 비할 때가 없다”는 말을 들은 정도로 당 재정 재건의 일등공신이었다. 현종의 측근 환관 고려사조차 양씨 일족은 특별 대우했다.

양귀비가 행차하면 말 재갈을 잡고 공손하게 채찍을 들었다고 한다. 인사를 총괄하는 이부상서가 되어 관리들을 쥐락펴락했다.

734년부터 재상직에 있던 이임보의 권세도 끝나갔다. 750년 비리를 고발하는 각종 상소가 황제에게 올라갔다. 그는 이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둘 사이의 권력투쟁도 심해졌다. 어사대부, 검남절도사, 경조윤 등 여러 요직을 겸직했다. 과거 왕홍의 권세가 모두 그에게 돌아갔다.

해 사이가 틀어졌다. 그는 여러 번 안록산의 반란 의도를 황제에게 추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임보 사후 재상을 노린 안록산에게도 양국충은 타도의 대상이었다. 안록산과 견원지간인 농우절도사 가서현과 손잡고 안록산을 제거하려했다. 가서현을 하서절도사를 겸임토록 하고 서평군왕에 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안록산의 허물을 고발토록 하고 장안의 안록산 저택을 포위해 그 일당을 체포해 죽였으며 안록산의 측근 길운을 예주자사로 좌천시켰다.

조정의 옥죄임이 심해지자 결국 755년 거병했다. 낙양을 무너뜨리고 장안 외곽의 동관을 돌파해 수도를 공포에 빠뜨렸다. 결국 사천으로 피난기로 결정하고 장안 외곽의 마외역으로 가는 중 비극이 발생했다. 티베트 사신을 접대중인 양국충이 티베트와 공모한다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졌다. 깜짝 놀라 급히 달아나려 했지만 쫓아온 병사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피로와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은 그의 머리를 잘라 창끝에 매달았다. 부인과 아들 양현, 양귀비의 언니들도 살해당했다. 사실은 황태자와 용무대장군 진현례가 꾸민 쿠데타의 일환이었다. 그가 장안에 들어온지 12년만에 전 가족이 몰살당하게 된 것이다. 양귀비 역시 고려사에 의해 불당에 목매 죽음으로써 양씨 천하가 끝났다.

“북핵 사찰 사상 최대 규모”

뉴욕타임스 전망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작업은 핵 폐기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찰 활동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북한에 대한 핵 사찰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은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보기관들과 랜드연구소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60개의 핵탄두를 제조했으며, 40~100개의 핵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0여 곳의 핵시설을 갖고 있던 이란보다 훨씬 큰 규모다. 북한의 원자력 산업시설은 4제곱마일에 육박하는 넓은 면적에 걸쳐져 있으며, 모두 400여 개 건물이 원자력 산업에 연관돼 있다고 NYT는 전했다.

최소 2개의 건물이 원자로를 보유 중이고, 이 중 1곳은 북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는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300여 명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관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NYT는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를 검증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핵 사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IAEA 조사관은 대부분 법외계학자로 핵무기를 알아보고 다루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은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기중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적인 협조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북한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하와이 화산 폭발...용암 주춧대 덮쳐 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분출된 용암이 주춧대인 레일라니 에스태이츠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날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산 폭발로 주택 26채가 불에 탔으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만·홍콩 노선, 중국 쪽으로 분류되나

중 요청에 한국 항공사들 검토

중국 민항총국(CAAC)이 중국내 36개 외국 항공사에 대만, 홍콩, 마카오가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 항공사들이 중국당국의 요청을 수용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중국 현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CAAC는 외국 항공사들에 표기법 수정을 요청하면서 한국 항공사들에도 관련 공문

을 보냈다. 일부 한국 항공사는 CAAC의 요청을 수용해 대만과 관련된 정보 분류를 모두 ‘동남아’에서 ‘중국 및 홍콩·마카오·대만’ 카테고리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티켓 예매창에서도 대만은 동남아 카테고리인 중국 카테고리에서 이동했으며, 다른 정보 안내에서도 동남아가 아닌 중국 카테고리로 편입됐다.

현재까지 관련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항공사들 역시 조만간 CAAC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정보를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 알려졌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CAAC는 지난 1월 JW메리어트 호텔과 델타항공이 대만과 티베트 등 표기와 관련해 논란이 있던 뒤 외국 항공사들에 1차 요청을 했다”며 “지난달 25일 2차 요청이 있었던 뒤로 일부 항공사는 관련 정보를 수정했고, 나머지 항공사들도 현재 본사와 표기법 수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직접 성명을 내 중국의 표기수정 요구를 ‘전체주의적 난센스’(Orwellian nonsense)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자연녹지지역)
토지 : 3,891㎡(1177평) 매매가 : 35억3천1백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증축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당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분양

- ★ 제주 스위스마을
총 66개동 중 3단지4단지 31개동 분양중(1단지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